

# 中國 高等教育體制와 學生選拔·管理·配定

## —中國의 高等教育(2)—

崔 榮 杓  
(KEDI 教育制度研究室長)

### 中國의 高等教育

1. 中國 高等教育의 變遷
2. 中國 高等教育體制와 學生選拔·管理·配定
3. 中國 大學의 教育課程
4. 中國의 學位制度和 大學院教育
5. 中國의 最近 高等教育 改革 動向

#### 1. 緒 言

오늘의 중국 고등교육은 실로 거대한 변혁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 사회가 4대 현대화 건설에 중점을 두고 과거의 폐쇄적 체제로부터 開放的 體制로 전환함에 따라 고등교육도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개혁들이 속속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체제를 개방하고, 입시 제도와 학적 관리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졸업 후 취업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수정을 가하였다. 이처럼 고등교육 체제를 대폭 개혁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4대 현대화 건설에 요청되는 고급 인력을 시급히 양성해 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길러 왔었다면 이처럼 서둘러 개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전 회에서 언급하였

듯이 文化革命期 때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많은 대학들을 폐쇄·합병하였으며,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고등교육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최근 중국이 현대화 건설을 위해 개혁을 수행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체제로부터 보면 매우 획기적인 것이지만 그 전체를 보면 社會主義體制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 당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의 중국 사회가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속하여 이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상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고는 있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사회 발전 단계로 볼 때 중국 사회가 낙후되어 있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 때문에 경제 개혁도 하고 대외 개방도 하며 자본주의와의 合作도 하는 것이지만 결코 사회주의의 이념까지 저버린 것은 아닌 것이다.

고등교육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러한 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오늘의 중국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많은 그리고 우수한 고급 인재를 시급히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혁명으로 인해 고급 인력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문호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 질도 시급히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든 이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체제를 대폭 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건을 정비하고 전문 지식인을 우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육 체제와 내용도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인간(紅) 양성으로부터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간(專) 양성의 방향으로 그 중점을 전환하여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배경을 이해한 후 본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고등교육 학제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 체제 위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학적을 관리하며 졸업 후에는 어떤 제도로 취업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그 실제와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2. 高等教育 學制의 構造

### 1) 高等教育機關의 類型

중국의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학문 탐구의 방식이 정규 대학에서 매일 이루어지는가 혹은 여가를 이용하여 공부하도록 하고 있는가의 경영 방식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으며, 全日制大學도 사회가 중점으로 지원하는가 아니면 보통 정도로 지원하는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공부하는가 아니면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영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全日制大學,

半工半讀制大學, 그리고 業餘制大學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全日制大學은 우리가 말하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말하며 중국의 고등교육을 논할 때는 주로 이를 대상으로 한다. 半工半讀制란 뜻 그대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서 毛澤東이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고등교육 방식이었다. 모택동은 “책으로만 배우고 실천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不完全한 知識이 된다. 즉, 뇌와 손의 노동이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경험으로부터 조직되어야 하며 지식은 노작 활동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 더우기 “교육의 不平等이 사회에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되므로(差別 消滅論이라 함) 노동자는 지식인화하고 지식인은 노동자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는 半工半讀制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가 정치 일선에 나섰을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학교가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業餘制大學은 일하고 남은 여가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대학으로서 주로 成人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업체 간부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1980년대 들어 대폭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속하는 학교로는 방송통신대학(廣播電視大學이라 함), 통신대학(函授學院이라 함), 야간대학, 短期職工大學, 그리고 각종 研修大學(進修學院)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1982년부터는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自學考試制度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누구나 공부하여 시험에 통과하면 대학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규 全日制大學 중 국가·사회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重點大學과 普通大學으로 구분된다. 重點大學은 교육 투자가 미흡한 중국의 사회에서 적은 경비를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이 대학이 이룩한 성과를 같은 계열의 다른 대학들에 보급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발전을 이끌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대학에는 국가가 보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수에 대한 대우도 보통대학에 비해 훨씬 잘 해 주고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특권도

주고 있어 한마디로 엘리트 대학이라 할 수 있다. 1982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 715개 전일제 대학 중 96개교(13.4%)를 중점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북경대학 등 종합대학이 17개교, 공과대학이 53개교, 農·林系 대학이 10개교, 醫學系 6개교, 師範系와 政法系 각 2개교, 외국어계 3개교, 예술계·체육계·민족계 대학 각 1개교로 구성되어 모든 계열을 포함하고 있다.

## 2) 高等敎育의 構造

고등교육의 기본 구조를 보면, 종적 측면에서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학부 과정은 다시 本科와 專科로 구분되는데 本科는 4년제 정규대학(全日制라 함)을 말하며, 專科는 직업·기술교육을 주로 하며 2~3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研究院이라 함)은 학술 연구를 위주로 하며 우리와 같이 碩士 과정과 博士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을 研究生이라 부르고 있다.

學部課程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크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년제로 되어 있는 本科 全日制大學과 직업·기술교육 계열인 2~3년제 專科學校(우리의 專門大學)로 나누어진다. 1981년 통계를 보면, 本科생이 106만 645명으로 82.9%, 專科생이 21만 8,827명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어 全日制 대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全日制大學은 다시 우리의 종합대학교에 해당하는 大學,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學院

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공 과정으로 조직한 단과대학만을 學院이라 칭하고 상관 전공 과정을 동시에 개설한 단과대학은 大學이라 부르고 있다. 예컨대, 石油나 水理 과정 하나만으로 구성되었으면 石油學院, 水理學院이라 하고 機械, 土木, 電氣 등의 과정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工科大學이라 하며 종합대학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부 과정에서의 대학과 專科學校가 개설하고 있는 계열은 총 12개로 구분하여 세분하고 있다. 우리의 人文·社會系列에 해당하는 계열로는 文科·師範·政法·財經·外國語·藝術의 6개가 있으며, 자연 계열 또한 理科·工業·農業·林業·醫藥·體育의 6개를 두고 있다.

## 3) 高等敎育 現況

그러면 중국의 고등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느 계열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전일제 대학과 전과 학교를 대상으로 삼아 학교 수, 학생 규모, 계열별 개설 과정 수, 그리고 재학생 수를 살펴 보면 표와 같다.

먼저 全日制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를 보면 1981년 현재 127만 9,472명으로 10억 인구에 비하면 고등교육 인구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급격히 그 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인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수(1981년 134만 6,300명)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꼭 낮다고 단정하기는

〈표 1〉 고등교육 기관 수(1983년)

기 관	종합대학	공업	농업	임업	의약	사범	어문	재경	정법	체육	예술	기타	총 계
수	36	215	56	11	111	210	10	44	10	13	27	10	805

※ 기타는 여러 계열이 합쳐진 기관과 민족대학 포함.  
※ 자료: 중국교육연감, 1984, p.965.

〈표 2〉 고등교육 기관의 규모(1981년)

학생 수	300명 이하	300 ~ 500	500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5,000	5,001명 이상	학교 수
기관 수	71	59	202	115	61	96	42	21	37	704
(%)	(10.0)	(8.4)	(28.7)	(16.3)	(8.7)	(13.6)	(6.0)	(3.0)	(5.3)	(100.0)

※ 자료: 중국교육연감, 1984, p.965.

〈표 3〉 고등교육 계열별 개설 전공 과정(1981년)

계열	문과	사범	정법	재경	예술	이과	공업	농업	임업	의약	체육	총계
전공과정 수 (%)	53 (6.4)	41 (4.9)	7 (0.8)	37 (4.4)	62 (7.5)	153 (18.4)	382 (45.9)	49 (5.9)	16 (1.9)	23 (2.8)	9 (1.0)	832 (100.0)

※ 자료 : 중국교육연감, 1984, p.966.

〈표 4〉 고등교육 계열별 학생 수(1981년)

계열	문과	사범	정법	재경	예술	이과	공업	농업	임업	의약	체육	총계
학생 수 (%)	69,076 (5.4)	321,444 (25.1)	9,944 (0.8)	47,895 (3.7)	7,326 (0.6)	99,840 (7.8)	461,265 (36.0)	78,837 (6.2)	13,618 (1.1)	158,986 (12.4)	11,241 (0.9)	1,279,472 (100.0)

※ 자료 : 중국교육연감, 1984, p.966.

곤란하다. 그러나 성인 고등교육이 현직 연수의 성질을 띠고 있어 교육의 질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현재 총 704개교 중 학생 수 1,000명 이하의 대학이 332개교로 47.1%에 달하며, 2,000명 이하의 대학이 508개교로 72.1%를 차지하고 있듯이 종합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표 1〉에서 보듯이 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열별로 또는 전공 과정별로 세분하여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 통계로 볼 때 北京市 外交學院은 1개 전공 과정만 개설하고 재학생 수 8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蘇州鐵道師範學院은 2개 전공 과정 6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한 계열의 學問群으로 구성된 기관이 많은 이유는 중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단기관내에 전문가를 양성해 내야 하는데 소련의 스페츠이 아리노스찌이 제도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문·사회 계열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자연 계열과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문과·정법·재경·예술 계열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1981년 현재 10.5%밖에 되지 않아 唯物論에 기반하고 있

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업 계열은 36.0%,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 계열은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 계열도 12.4%를 점하고 있어 이 세 계열만으로 73.4%에 이르고 있다. 이로 볼 때 중국의 고등교육은 자연 계열을 중시하고 있으며 현실 사회에 필요한 직업·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學生選拔制度와 學籍管理

#### 1) 大學入試制度

현행 대학 입시는 1977년 문화 혁명이 끝난 후 당시 鄧小平 부주석의 건의에 의해 채택한 統一考試制度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문화 혁명기 때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과는 아주 달리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전환한 이유는 4대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우수한 고급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으로 선발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의 중국은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국에 통용되는 매우 엄격한 진학 및 입시 규정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전형 절차를 보면, 학생이 지원한 후 1차로 고급 중학교 졸업 성적과 내신 성적 그리고 평소 행동 등을 참작하여 응시 자격자를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다시 본고사

(統一考試라 함)를 거쳐 최종 선발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시 지원 자격, 절차 및 방법, 1차 심사, 본고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 자격은 高級中學校 졸업 및 동등 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혼인 자로 25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허용하여 현재의 능력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학을 원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의 학교나 기관에 응시 원서를 접수시킨다. 접수시에는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 학과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先志願 後試驗의 제도에 따라 重點大學과 普通大學 각 5개교씩 그리고 대학별로 2개의 전공 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 폭이 넓은 것은 선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우수한 자가 지원을 잘못하여 낙방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지원이 끝나면 1차 응시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豫選이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黑龍江省부터 시작되어 전국에 보편화되었는데 대체로 당년의 高級中學校 졸업생 수와 예년의 대학 선발 정원을 고려하여 정원의 3~5배 범위 안에서 심사·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심사의 항목으로는 고급 중 졸업 성적, 평상시 내신 성적, 德育, 智育, 體育 方面의 성적 등을 참고한다. 이와 같은 1차 심사 과정을 두고 있는 이유로, 첫째는 대학 본고사의 한 차례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둘째는 하급 학교인 중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며, 셋째는 학생의 全人發達을 유도하고, 넷째는 진학 경쟁이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한 중국의 사회에서 대학 본고사 업무의 과중함을 사전에 경감시키자는 의도에서였다.

1차 심사 과정을 거친 자는 다시 전국에 통용되는 統一考試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 시험은 대체로 7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시행되어 왔다. 이 시험은 크게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로 구분하여 시험 과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 시험은 정치, 語文, 수학, 역사,

지리, 외국어의 6개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어문 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연 계열은 정치, 어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의 7개 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생물은 점수의 50%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외국어 시험은 국제화·개방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그 비중을 최근 들어 매년 높여 왔는데 영어, 러시아어, 일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 계열 학교는 별도로 구술 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시험 시간은 대개 1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어문 과목은 150분, 생물 과목은 45분 등안에 치루도록 하고 있다.

統一考試는 전국에 통용되는 시험으로 중앙교육행정기관인 國家教育委員會가 주관하고 있다. 시험 출제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수, 중등학교 교사 그리고 중등 교재 편찬자들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高級中學校 교육과정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어 하급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문과 계열이 語文科目의 비중을 높이고, 자연 계열이 수학 과목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타 과목보다 많은 수의 문항을 출제하여 각 대학이 계열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 합격 여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상과 건강 상황을 검토한 후 통일 고시의 점수로 결정한다. 즉, 대학 학업 적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기본 德性과 體力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 본 후 지식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등교육 목표는 한마디로 德·智·體(때로 勞·美를 포함시켜 五育이라 함) 모든 면이 고루 발달된 專門人才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德育이란 사회주의에 대한 긍지와 신념을 지닌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입학 전형시 이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화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지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들 덕성과 체력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격 여부에 별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 고시 성적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격 여부는 입시생이 지원한 대학의 학과별로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는데 지원 가능 대학이 10 개이고 각 대학별로 2 개 학과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고 한다. 특히 컴퓨터 작업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러나 성적 우수자는 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 어느 대학이 일류 학교이고 어느 대학이 삼류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외 1983년부터는 낙후된 농촌의 개발과 효율적인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특별 전형 제도를 두고 있다. 특수 목적에 따른 학생 모집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말로 定向招生, 英雄模範人物預科班, 有償養成 등의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원래 중국은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며 아직도 농업이 제일 주요한 산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개발을 고려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국 이후 이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1951년부터 1983년까지의 전국의 農·林 系統의 졸업생은 총 29 만으로 농촌 인구의 0.0037%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촌 출신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선발되지 못하였으며, 학교가 졸업생을 농촌에 배정해도 부임하지 않는다는든지 또는 의무 기간만 채우고 도시로 떠나 버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農業·林業·醫學·師範 계열의 대학들은 대부분 定向招生, 즉 졸업 후 농촌 출신 학생은 고향으로 복귀할 것을, 도시 출신 학생은 국가의 배정 명령에 복종할 것을 서약 받은 자만 모집 대상으로 하도록 전환하였다. 한편 농·림, 농촌 봉사 목적의 의학과 및 사범대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의 입시 성적도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 출신자가 같은 계열의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특별히 입시 성적 기준도 낮추어 잡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조치들은 모두 농촌 개발

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83년 중국이 공포한 '招生辦法'(학생 모집령)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特別 銓衡制度를 두고 있는 점이다. 중등학교에서 德·智·體 세 방면에서 특출한 성과를 보인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중등학교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과 추천 성적을 합친 결과에 따라 특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은 별도로 '英雄 模範人物 預科班'을 개설하여 文科 지망생과 사회 경력 있는 청년을 우선 입학시킬 수 있도록 특혜도 주고 있다.

有償養成이란 일정 기관이 경비를 제공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개념으로 다시 委託養成과 合同養成으로 구분된다. 委託養成은 위탁 기관이 비용을 제공하여 양성하는 방법으로 1984년 현재로 中央行政機關인 國務院 18개 部會 소속의 56개 대학에 2,300여 명이 위탁·양성되고 있다. 合同養成은 일정 기관이 대학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 2) 學籍管理

입학 후 대학생들이 소기의 학업을 성취하고 졸업하게 되기까지는 그 사회가 요청하는 일정의 과정을 통과하여 소기의 수준에 도달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이고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그 성취 수준과 행동을 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학적 관리라 이름하고 이 안에 進級, 성적 관리, 휴학, 전학, 전과, 퇴학 등의 학적 전환, 상벌 그리고 졸업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중국 사회가 시대에 따라 중점을 달리함에 따라 학적 관리에 관한 규정도 주기적인 변화를 거듭하였다. 대체로 보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엄격히 하고 강화시켜 온 데 대해 社會主義 理念을 우선할 때는 그 내용도 형식화되고 약화되었다. 오늘의 중국 사회는 4대 현대화 건설의 요구 때문에 이념보다는 실질을 우선하며 고등교육의 역할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으로 최근 들어서는 문화 혁명

때 폐기되었던 학적 관리 규정을 대부분 원상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던져 성적 평가는 시험 성적을 위주로 하면서 평상시의 학업 상황, 예컨대 실험·실습, 과외 활동, 토론회 참여 활동 등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시험 성적은 학기말 시험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성취 수준을 5 단계로 표시하거나 직접 점수로 나타내고 있는데, 단계 별로는 우수·양호·중등·합격·불합격으로 표시하여 위 4 단계를 합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進級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능력에 따라 월반 조기 졸업도 할 수 있고 留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은 과거에는 學年制를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융통성 있는 學點制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학별로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서술하는 데는 난점이 있지만 능력에 따른 진급을 보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겠다. 즉, 매학년말이 되어 규정 학점이나 과정을 이수하면 진급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요 과목별로 재시험(補考라 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1 차로 주고, 이를 통해서도 2~3 과목이 불합격되거나 또는 소정 학점의 1/3 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유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출석이 2/3 이상 되지 못하면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 재수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를 위해 월반하거나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려면 주요 과목이 모두 양호 이상이 되고 기타 과목은 합격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직접 수강을 하지 않고도 自習을 통해 과목 이수를 면제하는 길도 두고 있다. 즉, 특정 과목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는 학기별로 1 회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양호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두고 있다.

대학생은 질병으로 휴학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轉學·轉科는 금지되고 있다. 병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1년을 단위로 휴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는 公費로 치료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학·전과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이어서 질병이나 생리적 결함으로 도저히 그 학교나 학과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바뀌거나 부모 신변에 자녀가 없는 외아들의 조건 등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대학에서 중점대학으로, 專科에서 本科로의 전학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더우기 졸업반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학·전과가 어려운 것은 중국의 대학 사회 자체가 원래 하나의 사회 구성체로 독립(單位所有制라 함)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 숙사에서 거주하며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대학 졸업의 조건으로 졸업 시험 통과와 졸업 논문 작성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 소정의 학점이나 과정은 이수하였다고 하지만 졸업 시험에 통과되지 못하면 졸업 증서를 받지 못하고 수료증서(修業證書라 함)를 대신 받게 되어 사회 활동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불합격되었다 할지라도 한 차례 재시험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시험은 임지에 부담하고 나서도 어느 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재학의 조건으로 미혼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엄격하다. 이 규정은 1981년 2월 28일에 발표되어 시행되었는데 과거 문화혁명기 때 황폐화된 대학 질서를 바로 잡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30 세 미만으로 결혼하면 반드시 퇴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실제 나이가 들어 대학에 재학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대학생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4. 卒業生 配定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인력을 관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또한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기 때문에 인력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대학 졸업생 배정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

으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가 일괄 관할하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 배정에 관한 내용을 1982년 10월 4일에 공포한 '高等教育機關 卒業生 配定令'에 바탕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졸업생 배정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 부문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 교육행정 기관인 國家教育委員會(The State Education Commission)가 주관하는 대학의 졸업생은 중앙이 직접 배정하며 중앙의 노동부, 공업부, 재정부 등이 설립·주관하는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계통의 수요를 고려하여 그 부서가 주관하고, 省·市·自治區가 주관하는 대학의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배정하나 국가의 요청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配定計劃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국가가 유관 기관의 협조하에 깊이 있게 파악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하부 기관들이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하는 절차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계획의 작성과 집행시 문제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가계획위원회는 중앙 각 부처와 지방의 관련 행정 기관으로부터 인력 수요를 보고 받아 전국 각 지역별·부문별 수요 동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는 인력 공급 상황, 즉 전국의 대학 졸업생 배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수급 상황을 파악한 후, 국가계획위원회는 직접 대학교육을 주관하는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기본적인 졸업생 배정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학교육을 주관하는 여러 기관들은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계획이 검토되어 완성되면 공식적으로 國務院의 비준을 받게 되며 교육 주무 당국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제공하여 각급 대학이 졸업생 배정의 指針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급 人事行政機構는 배정 계획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견될 때는 이의를 제기하여 배정 계획

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졸업생 배정의 方針 및 重點事項을 살펴 보면, 현재 대학 교수진과 직업교육 교사진의 질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교사의 자질을 지닌 자는 우선 대학이나 직업교육 기관인 職業學校와 中等專業學校 교사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공업 부문과 에너지·교통 운수 부문, 발전이 느린 부문에 우선 배정하며, 中小企業의 요청과 生産 부문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륙 內地 저개발 지구나 소수 민족 지구 출신은 자기 고향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나 기관이 파견하여 공부한 학생도 원래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주관하여 졸업생을 배정함으로써 졸업생의 적성을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최근에는 졸업생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開放的인 배정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우수한 졸업생의 배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지원을 참조하여 대학이 추천하고 고용 기관이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히 우수한 졸업생에게는 배정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임의로 취업 기관을 選擇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배정 명령에 따라 취업한다.

한편 배정 명령이 떨어지면 이에 이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3개월 안에 부임해야지 異意가 있다고 하여 不服하면 많은 不利益을 당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졸업생이 배정을 받고 3개월 안에 배정된 기관에 부임하지 않을 때는 대학이 배정 자격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당해 행정 당국도 취업 유관 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5년 안에는 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임지에 부임한 후 사유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근무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생활의 근거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특기할 만한 사실로는 일부 대학이 졸업생 배정시 고용 기관으로부터 養成費用을 받고 있는 점이다. 有償分配制라 이름하는데 1984년 人民日報의 보도에 의하면, 北京



某大學의 分校는 電算專攻 졸업생을 배정하고 중국 화폐인 人民幣로 1인당 1만 원의 양성비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私有財產制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의문이 간다. 그러나 모든 기관이 1차적으로 自立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장을 직접 경영하는 등 소위 校網을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 5. 結 語

이제까지 중국의 고등교육이 어떤 체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학적을 관리하며, 졸업 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취업하도록 하고 있는가에 대해 대략 살펴 보았다. 중국이란 사회는 우리 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체제도 매우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학생의 선발·관리·취업 제도 또한 우리와 구별되는 특성이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개방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閉鎖的인 특성이 강하다. 중국의 정규 대학이라 할 수 있는 全日制大學은 그 수가 연구에 비해 매우 적으며 규모도 작고 문호도 개방되어 있지 못해 고등교육 접근 기회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학율이 매우 낮아 성인 고등교육 기관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고등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한번 입학하고 나면 이동 기회가 거의 없으며 취업도 일반적으로 국가의 배정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폐쇄적이다. 이는 개인보다는

集團을 우선하는 사회주의의 특성 때문이며 현실적으로는 경제 수준의 낙후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사회주의 平等理念을 중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不平等的한 고등교육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교육의 차별이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오늘의 4대 현대화 건설의 요청 때문에 실제로는 차등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쓰고 있다. 예컨대, 고급 인재를 집중적으로 길러내어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重點大學들을 집중 지원하며 이들 대학들에 우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졸업 후 취업처를 배정할 때에도 우수자에게는 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 기관은 지역별·부분별 특성 때문에 매우 多樣的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고등교육은 국가가 통일 관할하나 중앙과 지방, 그리고 부분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각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반 실정을 감안하여서 自費로 공부하는 학생도 모집하고, 야간 제도를 개설하며, 특별 전형을 통하여서도 학생을 모집한다.

유상으로 학생을 양성하기도 하며 운영 경비가 부족한 대학은 배정시 양성비까지 받기도 한다. 실로 10억 9천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가 심하고 중화민족 외에 56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체제로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